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5. 04 + 05 Vol. 178



Never
Ending
Peace
And
Love

dail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에 사랑하는 다일의 후원회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잔인한 4월이라 하는 말이 너무나도 실감나게 다가오는 날들을 보내고 이제 완연한 봄날에 찾아온 꽃들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저는 지난 4월 네팔 다일공동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일공동체와 저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있기에 아픔과 눈물을 잠시 씻고 작년 네팔의 날(4월8일) 포카라 빵퍼개원에 이어 올해에는 포카라 다일교회의 창립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꿈도 꾸지 못하고 피어나지 못한 빈민촌 아이들을 생각하며 다일의 해외분원 중 너무나 가난한 아이들과 재능이 있는데 그 꿈을 키우지 못한 아이들을 선별하여 나부터 결연과 장학사업을 더욱 더 확대해 실천하고자 합니다.

빈민촌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의 눈물을 한번이라도 더 닦아주고, 넘어진 아이 한명이라도 더 일으켜 세워주고, 배고파우는 아이에게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나누는 것이 1년 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 침몰한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고통을 승화시키는 길이라고 여겨집니다. 온 나라를 눈물과 비탄 속으로 빠져 들게 했던 국민적 상처가 흉터가 아닌 교훈의 흔적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다일 스텝들은 안산 합동 분향소와 단원고등학교 그리고 그 곁의 안산 명성교회 위에 있는 온유의 뜰로 이어지는 소생길을 다일가족들과 함께 여러 차례 걸었습니다. 묵묵히 걸으며 제가 다짐하는 것은 더욱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아픔을 이기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더욱 더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때문에 받은 상처는 더욱 사랑함으로만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다일후원회원 여러분!

이웃과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사랑의 나눔이 있을 때 아름다운 세상이지 사랑의 나눔이 없는 곳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입니다.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일 때만이 이 꽃피는 계절의 여왕 5월도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각 심령마다 가정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15년 5월에

작은 형제, *척* 임드 올림

05



CONTENTS



06



c.o.v.e.r.s.t.o.r.y

사랑해요. 네팔~

Nepal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팔 현지의 선교사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뜻입니다.

N ever
E nding
P eace
A nd
L o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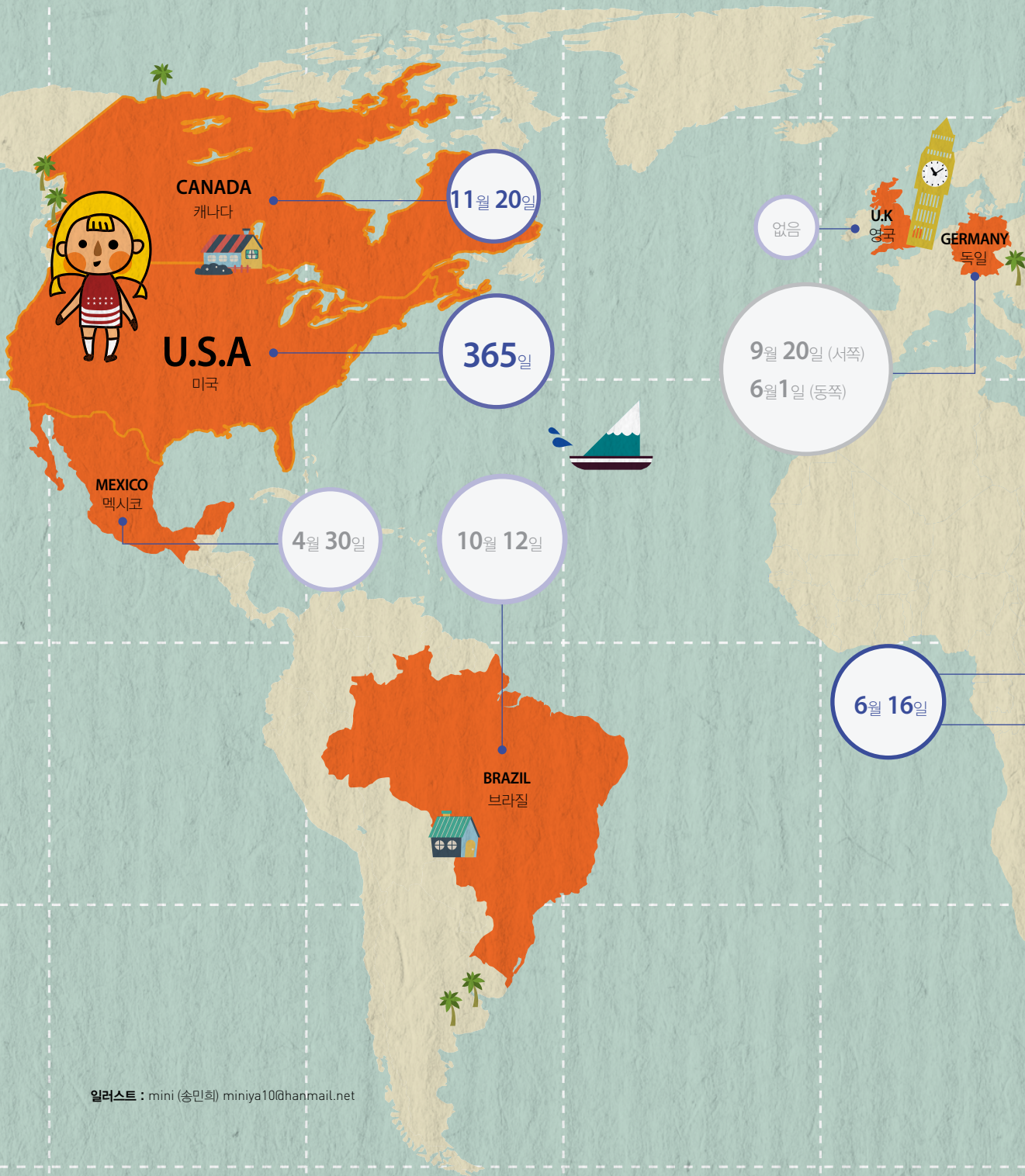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네팔에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네팔다일공동체는 포카라지역 빈민촌내에 있는 사하라 초등학교에서 주변 빈민촌 뿐만 아니라 멀리 산 골짜기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빵으로 일용할 양식을 나누기 위해 빵공장을 세워 복음과 함께 빵을 나누는 빵퍼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2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고 있니?
- 06 에프엠커뮤니케이션 + 자투리운동
- 10 꽃보다 봉사단
- 14 아! 네팔
- 18 영성수련 소감문
- 21 마음을 위로해 주는 시
- 22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 31 회계감사보고서
- 34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36 신규후원감사
- 38 후원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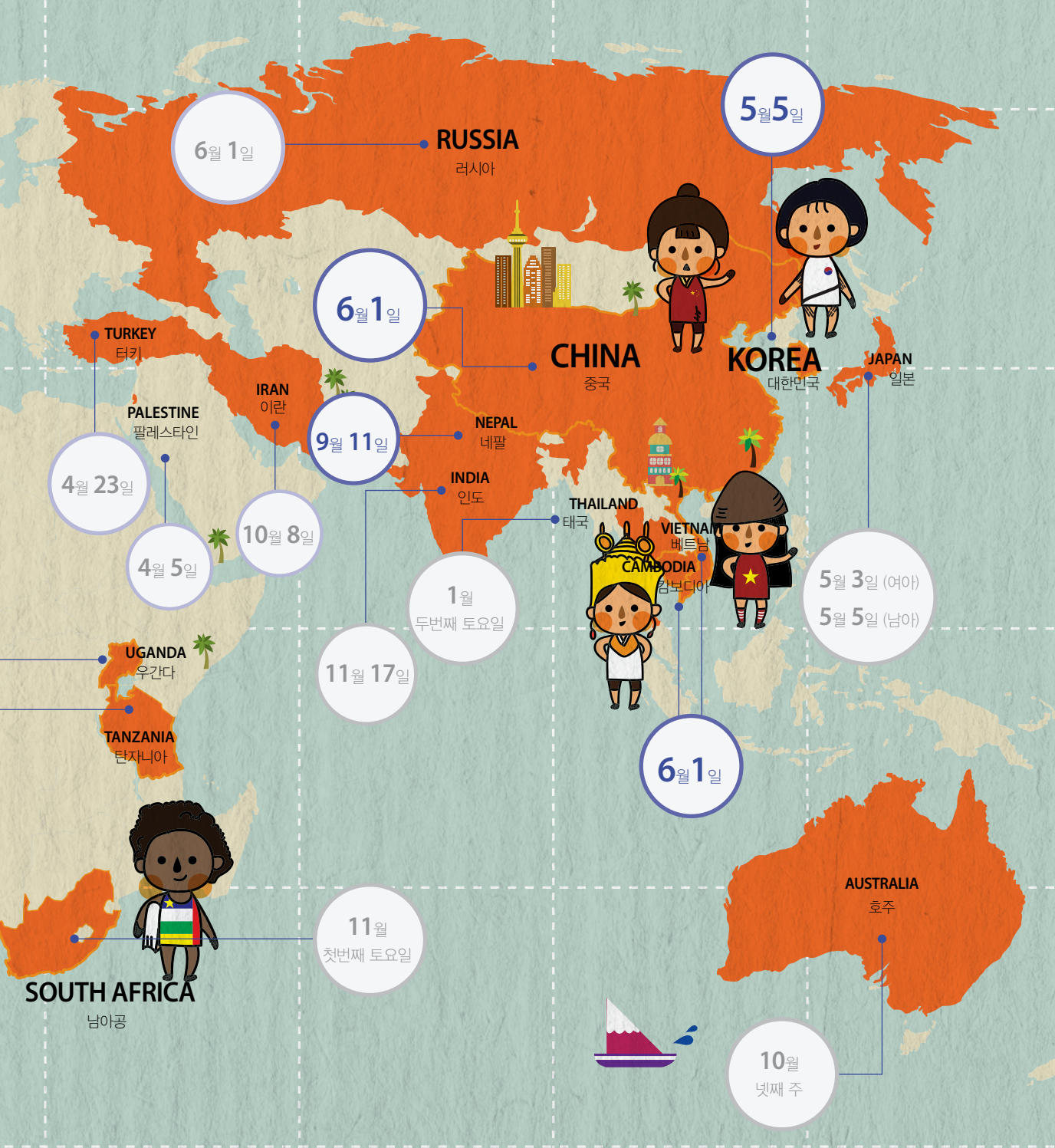
외국의 어린이날은?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고 있지?



11월 20일 세계 어린이의 날

'세계 어린이 날'은 국제연합UN이 1925년 제네바에서 열린 '이동복지를 위한 세계 회의'에서 제정되었으며 세계 각국에 어린이날로 기념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나라마다 의미가 달라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미세먼지가 봄바람을 타고 서서히 걷히면서 전국은 봄 꽃들과 어린이들이 어우러져 어떤게 진짜 꽃인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쁜 장관을 연출합니다. 어린이날의 풍경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된 '어린이날'. 전 세계 아이들은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매년 5월 5일을 법정공휴일로 정하여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도록 만든 기념일로 어린이를 기쁘게하는 다양한 행사와 이벤트가 열려요.

미국

미국에는 어린이날이 따로 없어요. 어머니날(5월 14일)과 아버지날(6월 18일)은 있지만요. 그러나 어린이날이 없어도 섭섭하지는 않아요. 왜냐고요? 미국에서는 '1년 365일이 어린이날'이라고 할 정도로 평소 어린이들을 많이 배려해 주기 때문이죠.



중국

중국은 국제 어린이날인 6월 1일을 공휴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샤오쉐(小學)'는 하루 쉬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요. 학교별 기념 행사는 전날에 주로 펼쳐지는데, 소풍을 가거나 여러 가지 오락 활동을 하곤 해요.

베트남

베트남의 어린이날은 6월 1일이지만 추석인 '땃쭉투'가 제2의 어린이명절이 되었어요. 농경사회의 어른들은 아이들을 돌 볼 틈 없이 바쁘지만 한가위 만큼은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화려한 등불이나 장난감을 선물해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의 어린이날은 수천 만 명의 흑인학생들이 인종차별에 대항하며 일어난 거리행진에서 비롯되었어요. 희생된 어린 생명들을 기리는 뜻에서 현 아프리카연합에서 '아프리카 어린이의날'로 지정했으며 그 후 전 세계적으로 매년 6월 16일을 아프리카 어린이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5월은 가정의 달로 특별히 1일~7일은 아동복지법에서 지정한 '어린이주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잡고 나들이를 하며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런 행복에서 열외된 아이들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없이, 부모가 있어도 없는 것보다 못한 어린이를 낳고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107개국 어린이날을 지정하여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존중을 표현하고 따뜻한 봄날과 같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 모두가 이렇게 행복할까요?

하루 생계를 위해 쓰레기장으로 내몰리고 구걸을 위해 거리를 배회하며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어 홀로 외로이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핍박 받거나 가난과 질병의 고통 속에 놓인 어린이들이 지구촌 곳곳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 5월 가정의 달에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아이만을 위한 이벤트나 선물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365일 행복한 어린이날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dail**



내 꿈은 비행기조종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알리에요. 초등학교 2학년이며 제 꿈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2년전에 아빠가 떠난 후 엄마 혼자 채석장에서 돌을 깨며 버는 3,000실링(한화 3,500원)으로 살고 있어요. 전기도 물도 들어오지 않는 진흙으로 지어진 단칸방 집에서 엄마와 형, 동생과 함께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집에는 허름한 소파, 작은 낮은 침대 하나, 오래된 몇 가지 살림들이 전부예요. 남들이 불쌍하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슬프지 않아요. 비록 옷도 낡고 신발도 없지만 저는 환하게 웃을 수 있어요. 왜냐구요? 저에게 비행기 조종사라는 꿈이 있으니까요.

다일공동체는 1:1 아동결연을 통해 빈곤지역 아이들을 돌보며 그 지역사회가 함께 변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과 교육, 지역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사업, 보건의료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함께 살아가며 수혜자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감동을 선물하고, 후원회원님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후원회원께는 감동을 전달하는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와 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가 함께 걷어가는 희망의 세상

이혜진 다일복지재단 홍보전산실 간사

화려한 무대 시설과 역동적인 퍼포먼스, 상상을 구현해 내는 현장

에프엠커뮤니케이션즈(이하 에프엠) 임직원들의 일터의 모습은 예사롭지 않다. 대한민국 NO.1 Total Promotion Agency 에프엠이 만들어 낸 또 다른 기적. 매년 다일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의 따뜻한 밥 한 그릇으로 되어 주기 위해 '자투리 운동'을 한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자투리 운동

에프엠의 CSR 활동 중 하나인 자투리 운동은 사회에서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의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은 에프엠 모든 임직원의 마음이 뚝뚝 담겨 있습니다. 무려 9년 동안 다일공동체와 에프엠 임직원이 함께 쌓아온 우정은 남다른 수밖에 없습니다.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를 다녀가신 윤세진 수석국장님의 제안으로 모든 임직원이 자신의 급여중 1,000원 이하를 소외된 이웃을 위해 후원하며 조금씩 쌓은 모금액이 올해 21,200,988원을 돌파했습니다.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매칭펀드

2015년 3월에는 직원들이 자투리 운동으로 모은 모금액만큼 기업에서 직접 후원하는 매칭펀드를 실시하며 에프엠 임직원들과 기업이 함께 뜻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만들어진 자투리 모금은 무의탁 어르신들과 해외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향수를 부리는 것과 같다.
부릴 때 자기에게도 몇 방울 정도는 묻기 때문이다. **탈무드**

아무리 값비싼 향수라도 자기만 맡을 수 있는 향기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향수의 향기가 다른 이의 콧등에 전해질 때 더 향기로워지며 가치가 빛나게 되어있습니다. 향수의 향기는 나눔이 만들어내는 큰 기적과도 같습니다. 에프엠과 같은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막막한 현실 속에서 슬퍼하고 있을 우리의 이웃들을 미소 짓게 할 향긋한 봄 향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을 잃어버린 어린이와 이웃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준 에프엠의 사랑이 날로 향기롭게 빛나길 기대합니다.

에프엠에 대해 소개해 주세요.

에프엠 커뮤니케이션즈는 올해로 설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이벤트 프로모션 대행사입니다. 국가와 기업의 공연, 전시, 신제품 발표회, 시상식 등 이벤트 프로모션의 전문분야에 걸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실만한 행사로는 작년 4만여명이 함께 영동대로에서 펼친 현대자동차 월드컵 응원전, 현대카드에서 진행하는 콘서트인 시티 브레이크, SKT 아이폰 6 런칭 등이 있겠네요. 현재 총 80여명의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와 함께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저희가 하는 업무 분야 중 CSR 마케팅이라는 분야도 있어요. 광고주를 위해 CSR에 대한 아이디어 회의를 하던 중에 '광고주에게 제안만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담은 우리만의 CSR 활동도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초 기부처는 3곳 정도

를 소개하고, 직원들의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선정하게 되었어요. 그때 많은 회원들이 투표하신 곳이 다 일복지재단 '밥퍼 활동'이었습니다. 나의 작은 자투리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끼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투표하신 것 같습니다.'

자투리운동을 제안하고 시작하면서 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함께 할수 있었던 계기나 비결이 있었나요?

다들 이런 활동에 목이 말랐는지, 60% 이상의 직원들이 참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최초의 참여는 크게 어렵진 않았어요. 다만, 신규 입사자와 퇴사자가 생기면서 회원이 자연 감소하였는데 그때 마다 자투리 활동을 소개하고, 회원 가입을 유도하는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또 매달 자투리 기부 내용을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 꾸준히 올려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일까요?

자투리운동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삶 속에서 변화된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고참이라, 후배들에게 새로 가입 안내 메일을 보낼 때, 선배의 강요로 보여질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흔쾌히 가입 하겠다 하면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 감동이다 라고 이야기 해주는 후배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직원들 마음 속에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하는 착한 마음들을 느끼게 되면서, 참 훈훈해 질 때가 많습니다. 또한 자투리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법

으로 봉사하고 기부를 하는 후배들이 많아. 참 착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사구나. 삶을 때가 많아요.



앞으로의 CSR활동이나 나눔사역에 있어 비전이 있으시다면?

자투리 운동의 기준이 월급에서 천원단위 이하 금액의 절사이기 때문에 많게는 구천원, 적게는 몇 십원의 기부일 때도 있어요. 나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의 기부인 것이죠. 이렇게 9년간 쌓인 금액이

2천만원이 되었어요. 2천만원을 기부하는데 9년이 걸렸다면, 회사가 점점 성장해서 회원도 많아져 훨씬 짧은 기간에 2억원까지 기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사에서 하는 기부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들이 많은 회사는, 회사 자체도 번성해서 더 큰 CSR로 돌아간대! 는 선순환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에게 있어 나눔이란?

저희 회사 직원들 모두가 정말 바빠요. 주말이 없을 때도 많고, 야근, 밤샘이 매우 익숙한 사람들이죠. 저희 같은 회사에서 진정성있는 나눔을 하는 방법은 바쁜 일정에서 무리하면서 참여하는 1회성 기부, 봉사보다는 쉽게 늘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나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깨 으쓱 대면서 하는 나눔보다는 생활 속에 스며들어 자연스럽게 행하는 나눔과 감동만들기가 가장 에프엠스러운, 에프엠이 잘 할 수 있는 나눔인 것 같습니다.



나눔이란?



함께 지어저 가는 꿈 - **남궁단**
(마케팅전략팀)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 - **이태금**
(마케팅전략팀)

넘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 - **주동훈**
(마케팅전략팀)

작은 정성으로 큰 행복을 실천하는 것
임슬빈(6사업부)



작은 정성으로 큰 행복과 감동을 선물 하는 것 - **에프엠 자투리회원 막내**

자투리 모금이란?

작은 실천으로 큰 사랑을 나누는 한국형 직장인 모금캠페인으로 매달 기부자가 약정한 후원금이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는 정기적 나눔 실천입니다. 자투리 모금은 다일공동체와 약정을 맺은 일터의 직원들이 소중한 생명에게 따뜻한 밥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아 큰 사랑을 만들어 가는 기업의 기부문화입니다.

자투리모금 참여방법

기부금은 자신이 약정한 후원금이 매월 급여통장에서 자투리 모금 계좌로 자동이체 되어 국내외 소외된 이웃에게 영양식단, 의료,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사용되며 연말에 소득공제를 위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자투리 모금 참여하기

☎ 02 - 2212 - 8004

자투리 모금



5 기부



6 기부금 집행



1 캠페인 참여방법 상담
02-2212-8004



4 기부약정서 작성 및 전달식 진행
(임직원 모금, 기업 모금, 매칭그랜트 선택)



2 직원과의 의사공유



3 자투리 모금 신청서 작성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



꽃보다 봉사단

눈부신 햇살이 마음까지 맑게 하는 기분 좋은 봄날.

별꽃처럼 여러 여러해 보이지만 열정으로 뽕뽕 뭉친 똑심 있는 여인 3인방이 있었으니...

가장 아름다운 청년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해외 다일공동체 분원을 접수한 여전사 3인방을 만나보았다.



최수린(26)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KCOC단원/
사회복지학 전공/
블루록 빠져드는 유쾌함의 소유자



선한주(25)

네팔 다일공동체 KCOC단원/
기독교문화학 전공/
털털함과 따뜻함을 경비



선우진주(29)

네팔 다일공동체 KCOC단원/
청소년복지학 전공/
여유 있고 낙천적

봉사단원으로 지원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최수린 그리스도인으로써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며, 가장 잘 할 수 있고 잘 하고 싶은 일을 찾던 중 KCOC 봉사단원을 지원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차원적인 봉사를 넘어 나의 문화가 아닌 캄보디아 그들의 문화에 들어가 함께 숨을 쉬고 밥을 나누며 삶으로 내가 아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싶었습니다.

선한주 2013년 8월에 다일 비전트립을 통해 네팔 다일공동체를 방문했습니다. 말간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동자에 빠져버렸고, 진실한 사랑으로 다가오는 현지 스텝들에게 완전히 매료되

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개국 이상을 여행했지만 '여기서 살아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은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니 물과 전기는 부족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공해와 먼지, 치안문제 등 생활 환경은 열악해 보였지만 봉사단원으로서 극복해나갈 자신이 있었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우진주 어렸을 때부터 해외봉사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습니다. 정말 막연하게 평생에 한 번쯤은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서 얼굴이 까만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고 싶다는 상상을 했었는데, 27살이 되었을 때 문득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꿈이 이루어지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어 봉사단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최수린 아동결연 업무였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한 아동을 찾아 가정방문을 하여 아동의 필요를 살피고 결연이 필요한 아동에게 후원자님과 결연을 할 수 있게 중개자 역할을 하며 친구이자 선생님이로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해결방안을 찾았습니다.

선한주 아침마다 400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하는 ‘밥퍼’ 업무가 모든 스텝들과 함께 가장 먼저 이뤄집니다. 제가 맡은 주 업무는 두 가지였는데 다년도 KOICA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안학교 호프스쿨’ 사업관리와 1:1 결연 아동을 신규조사 및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선우진주 회계 및 기타행정 업무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목적에 맞게 사용된 운영비를 잘 정리하여 보고하는 것부터 사진촬영, 현수막 디자인, 영상제작 등의 다양한 행정업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은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으로도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최수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시는 후원자님들의 모습입니다. 후원자님들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찾아와 주시는 이유는 단 한가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적든 자신의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나누면서도 조금밖에 나누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볼때면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또한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찾아와 후원과 중보를 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의 모습은 저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선한주 카트만두 최대 빈민촌 한 가운데에 네팔 다일공동체가 위치하고 있다 보니 극적인 사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텐트촌에 살다가 모기로 인해 폐렴과 뇌수막염에 걸려서 생사를 오갔던 4살짜리 여자아이 ‘서퍼나’는 네다일 스텝들에게 특별한 아이입니다. 저는 불덩어리 같은 아이를 품에 안고 달려가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켰는데, 첫 진단 결과

“지금 상태라면 24시간을 넘기지 못할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나온 후 아이 엄마와 저는 대기실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아이 엄마의 슬픔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고, 어떤 말도 주고받지 못한 채 서로 울기만 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서퍼나는 많은 후원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살아나서 나날이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와 저는 그 후로도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극도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에도 서퍼나의 엄마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 가장 많이 울었고, 아직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선우진주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수스마’라고 하는 작은 여자 아이가 저에게 1루피 동전 하나를 건네며 제 주머니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1루피는 약 10원 정도의 금액이고, 네팔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현금시간이 되자 수스마는 저에게 주었던 동전을 달라하여 현금 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그 동전이 수스마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정성껏 준비해 온 헌금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 손에 들려 있던 헌금이 부끄러워 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려도 그 1루피 동전 하나보다 가치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봉사를 하며 힘들었던 부분과 나만의 극복방법이 있다면?

최수린 봉사를 하며 힘들었던 부분은 현지어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며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영어를 사용 할 줄 몰라 현지인 스텝과 함께 만나 상담을 했는데 생각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느낀 후 현지인 스텝에게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을 정리하여 현지인 스텝들을 따라다니며 계속 연습하여 저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느정도 캄보디아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을때에도 안주하지 않고 늘 새로운 단어와 문장을 익히며 실생활에 적용시켰더니 어느새 불편함 없이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한주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문득문득 가족들과 한국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늦은 밤에 혼자라는 느낌을 받을 때,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켤 때, 현지식이 물려서 집밥이 생각날 때 등등. 이런 생각이 들 때에는 오히려 네팔과 친해지고 다짐했습니다. 혼자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서 카트만두의 이곳 저곳을 걸어 다니면서 구경했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날 갔었던 길이나 동네를 지도에 색칠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색칠한 곳이 많아지는 걸 보는 것이 흐뭇해지면서 확실한 기분전환 방법이 되었습니다.

선우진주 파견되기 전 국내 교육에서 '해외에 파견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 힘이 들 것이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므로 조금해 할 필요 없다.' 는 조언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또 성격도 낙천적이 편이어서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막상 파견되고 보니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외롭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기를 쓰고 열심히 네팔어를 공부했습니다. 만약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 저에게 전혀 힘들지 않았다면 네팔어를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겠죠?

앞으로/현재 꿈은 무엇인가요?

최수린 앞으로의 꿈은 KCOC 봉사단을 지원한 계기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부르시는 사명 실현지에서 일을 하는 착한 종이 되는 것 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 오시어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저 또한 세상 속에서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찾아가 사회 복지사로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선한주 네팔에서 만났던 아이들과 주민들, 그리고 1년의 봉사를 통해 삶과 가치에 대하여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보냈던 시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겸손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선우진주 일단은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것이 현재 저의 꿈입니다.

미래의 봉사단 후배들에게 선배로서 조언이 있다면?

최수린 봉사를 떠나기 전에는 무언가 해내고 말겠다라는 열정으로 불타있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열정이 소진되어 내가 왜 이곳에 있지 라는 존재 가치에 대해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한 마음을 갖기 보다는 먼저 파견된 곳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삶 속에 천천히 들어가다 보면 파견 된 곳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봉사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선한주 봉사는 '나는 잘 살고, 그들은 못 살기 때문에' 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겪어보니 그들이 저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제가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진심을 담아 다가가고 봉사한다면 분명 얻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일상의 소소한 감사들도 꼭 찾으시길 바라요^^ 파이팅!

선우진주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해외봉사, 또는 선교를 나오고 싶은데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전에는 두려움이 앞서 선뜻 지원하기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서 공감됩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어서 일단 저지르고 보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DaJL





**2014년 다일공동체
사명실현지에서 애써주신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새롬(캄보디아), 민현식(캄보디아),
선우진주(네팔), 선한주(네팔), 오주욱(필리핀),
이선정(네팔), 이정화(네팔), 정다운(캄보디아),
최수린(캄보디아), 최지원(캄보디아),
추고은(필리핀), 한성희(캄보디아)





아, 네팔!

더불어꿈 대표,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선규

3월 6일 오전 6시 40분, 급하게 공항을 향하고 있는데 휴대폰 벨이 울린다. “저 다일인데요, 카트만두 공항사정으로 오늘 출발이 취소됐어요. 그래도 멀리 계시지 않으면 약속장소로 와 주세요.”... 도착해보니 10여명 비전 트립팀이 황당한 표정으로 모여 있다. 카트만두 공항에 착륙하던 비행기가 사고를 내 활주로가 많이 파손됐단다. “아! 네팔은 내 생각보다 훨씬 열악한 수준인 모양이구나...” 그러나 “내일 같은 시간에 출발한다.”는 소식에 그 아침 시간은 오히려 모두에게 예정에 없던 보너스가 됐다. 공항 카페에서 화기애애한 코이노니아, 특별히 에볼라 전사 최영미 집사님의 생생한 경험담이 흥미진진했다. 아쉽게도 비행기는 다음날도 뜨지 못했다. 새벽 5시가 되기도 전에 울린 전화벨에 나는 직감했다. “아, 오늘도 출발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속이 상했다. 얼마나 버리고 별렀던 네팔인데...

네팔 비전트립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뤄졌다. 오랫동안 고대했고 더 어렵게 성사된 때문일까? 7박 8일의 여정은 그야말로 행복 가득한 시간들이었다. 계획했던 일정이 두 차례 연기 끝에 취소됐을 때 솔직히 마음을 접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모양이구나. 그래, 오라는 곳은 없어도 찾아야 할 곳은 많은 현실에 8일은 너무 긴 것이 사실이지...” 아쉽게는 했지만 그렇게 정리를 했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곳에 내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비전트립 기간에 잡혀있던 일점들을 하나, 둘 정리해 주시는 게 아닌가? “선규야! 아무 걱정 말고 다녀와라. 가서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느껴보기 바란다!” 하시듯이.

삶은 삶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그렇게 도착한 4월의 네팔은 첫 순간부터 엄청난 충격으로 나를 흔들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이라는 최대의 힌두 사원, 파슈 파트너트 입구에 들어서면서 만

난 저 멀리 희뿌연 연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서니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르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세어보니 열 군데 가까이, 각각의 간격이 10미터도 안 될 것 같았다. 그 주변으로는 무표정한 사람들이 말없이 지켜보고 있고 강 건너 맞은편에서는 관광객들이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다. 아무렇지도 않게 불길 바로 앞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시신을 불태우는 화장식이었다. 충격이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란 말인가? 대낮에, 길거리에서, 아무런 가림막도 없이... 최소한의 경건함도, 망자에 대한 존엄성도, 가족들의 곡도 없었다. 그저 불쏘시개를 이용해 불길을 유도하고 정리하는 화공의 기계적인 움직임만 있을 뿐...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삶은 삶대로, 죽음은 죽음대로 그저 자연스런 현상일 뿐 양자 사이에 결코 특별한 구분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듯이...



짜이며쉬!

“짜이 머쉬!” 외침과 함께 아이들의 힘찬 찬양이 넓지 않은 공간을 가득 채운다. “예~수 람로차 예~수 람로차~” 맑고 깨끗하게 아이들이 목청껏 불러대는 노래와 신나는 울동에 밥퍼 강당이 들썩거린다. 함께 하면서 찬찬히 살펴보니 아이들의 모습은 피죤피죤하기 이를 데 없다. 땃국물 자국이 선명한 손과 얼굴, 코는 흘러나오다 인중에 말라붙었고, 감은 지 족히 몇 달은 됐을 것 같은 푸석푸석한 머리, 눈으로도 냄새가 확인되는 지저분한 옷... 한데 그런 녀석들이 예쁘다. 눈은 티 없이 맑고 표정은 천사같이 밝다. 손을 내미니 수줍은 표정으로 입을 맞춘다. 기분이 좋다.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이 무슨 기막힌 역설이란 말인가? 우리는 아이들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불쌍한 아이들을 돕겠다고 왔는데... 정작 위로 받는 쪽은 아이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라니. 맑은 눈빛과 환한 미소, 밝은 목소리... 아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으로 뜨겁게 우리를 맞았다. 그것이 위로가 됐다. 걱정하지 말라고, 답답해하지 말라고, 가진 것 감사하며 살라고... 이정희 권사님은 어느 새 아이를 안고 세상을 다 얻은 표정이다. 창원 댁 황혜정님도, 이동원 목사님도 아이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제 알았다. 최일도 목사님이 왜 틈만 나면 이곳을 찾으려 하는지, 네팔만 찾고 나면 또 왜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지를. “그곳에 가면 제가 왜 네팔을 또 찾게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하던 황혜정님의 퀴즈 같은 얘기도 확실하게 이해가 됐다.



포카라 다일교회

포카라 다일교회는 폐와 호숫가, 안나푸르나 사우스와 마차푸차레의 눈 덮인 봉우리가 바라다 보이는 기막힌 곳에 위치해 있었다. 봉헌 예배를 위해 카트만두에서 9시간 이상이나 차를 달려왔다는 밥퍼 가족들의 찬양 인도로 예배당 안은 시작 전부터 열기가 후끈했다. “너무 많이 준비한 것 아닌가?” 싶던 100여개의 자엔 어느 새 사람들이 다 앉았고 흥겨운 찬양이 이어질 때마다 주민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몸을 흔들었다. 그 분위기에 접잡은 목사님도, 권사님도, 나도… 덩달아 일어나 몸을 흔들고… 어느 새 경건한 예배당은 신명 나는 춤마당으로 변했다. 그 흥겨운 춤판의 주제는 오직 하나, “예수님 찬양”이다. 춤은 이 사람들의 강렬한 신앙고백인 셈이다. 도대체 수줍음 많아 보이는 이 사람들의 어디에 이런 끼와 열정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

이국현 목사님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얘기로 포카라 다일교회의 소명을 일깨우셨다. 당시 선교사들이 잠



자던 조선 땅을 깨우고 오늘로 이어지는 희망의 역사를 만들어 냈듯이 포카라 다일교회 또한 잠자는 네 팔을 깨우고 희망의 역사를 만드는 중심이 돼야 한다고, 뜨거운 아멘이 온 예배당을 흔들었다. 최일도 목사님은 소명을 다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섬김임을 강조한 뒤 몸소 직원들의 발을 씻기셨다. 특별히 남들이 칭찬할 때는 “아닙니다.” 남들이 욕하고 비난할 때는 “당연하지요”해야 한다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 환경직 목사님의 생전의 가르침이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때렸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명불허전! 히말라야는 초라한 나의 상상력을 마음껏 비웃었다. 구름인 듯 봉우리인 듯 하늘 속에 빠죽이 솟아있는 눈 덮인 봉우리들. 병풍을 두른 듯 사방이 눈부시다. 특히 해뜨기 전 새벽 시간엔 설봉들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와 서 있다. 감정이 무딘 내가 달려가 그 품속에 안겨보고 싶을 정도이니 필경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내달렸으리라. 거부하지 못할 저 아름다운 유혹에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설산에 기꺼이 몸을 맡겼던가… 아름다운 것은 설산만이 아니었다. 밤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빼곡하다. 그 많은 별들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 나타난 것일까?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온갖 별무리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현란한 몸짓으로 밤마다 천상의 향연을 연출한다. 보고 싶노라면 그저 황홀하다. 어디 그뿐이라. 발을 딛고 가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숨 막



히는 장관이… 가슴 땀 뚫리는 비경이 펼쳐진다. 유혹을 참지 못하고 그림 같은 계곡 물에 발을 담가본다. 한기가 뼈속까지 파고든다. 아, 그렇지. 이 물은 만년의 세월을 품은,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정결한 히말라야수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의 지붕 가까이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 수많은 탐험가들이 꿈꿨던 그 영산의 신비스런 속살을 더듬고 있다는 사실에 좀처럼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 그냥 보내기 아쉬웠는지 히말라야는 마지막 날엔 강렬한 햇빛과 싱그러운 바람, 맹렬한 빗줄기와 손톱만 한 우박, 천둥, 번개 그리고 안개까지… 산에서 맛을 수 있는 온갖 현상을 다 보여주며 우리의 특별한 만남을 잊지 못할 기억으로 각인시켰다.

이들도 우리처럼

히말라야 설산은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그곳에서 만난 네팔 사람들은 가슴을 아리게 했다. 특히 잘생기고 똑똑하고 건설해 보이는 젊은이들이 슬리퍼 차림으로 최소 50킬로그램이 넘는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모습은 진한 안타까움이었다. 단지 네팔이라는 못사는 나라에 태어났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 50년 전 우리를 보았다. 먼지 나는 거리, 악취 풍기는 하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사람들, 비참하게 내팽개쳐진 아이들, 일감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 눈이 닿는 곳마다 안타까운 현실, 그들에겐 힘겨운 육체노동조차도 부러움과 감사의

대상이었다. 그런 네팔을 보며 위대한 대한민국을 실감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새삼 깨달았다. 이들도 우리처럼 50년 뒤 오늘을 추억하며 웃을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다. 천사같은 아이들이 지금의 내 나이쯤 됐을 때 오늘을 추억하며 대한민국을 얘기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그 멋진 날을 위해, 우리가 받았던 사랑으로 그들을 깨우고 있는 다일이 먼저 보였다. 다일이 만들고 있는 역사가 뿌듯했다. 다일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한없이 자랑스러웠다. 먼 훗날, 역사가들이 해외 원조에 관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할 때 오늘 다일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굵은 글자로 기록되리라. 그 기록 속에 최홍 원장님 부모도, 팀세나 부원장님 가족도, 쿠샬 목사님 부모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리라.

— 행복한 여정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생각해본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고 싶으셨던 것이 참으로 많았구나.”** **“고맙게도 그 모든 것을 나는 다 보고 또 깨달았구나.”** **“비전 트립 7박8일은 일생 기억될만한 귀한 선물이었구나.”**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행복하고 의미있는 시간에 감사해야겠구나.”**

모든 일정을 주관하시고 아름답게 마무리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리고 동행의 의미를 일깨우며 여행의 즐거움을 더해주시는 최일도님, 이국현님, 박용대님, 김홍열님, 이정희님, 이동원님, 황혜정님, 김도한님, 이우리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DaIn**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161기 황예지(앞새)

최일도 목사님의 '아름다운 세상 찾기' 라는 영성수련을 접하기 전,
저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든...



…그렇게 제 자신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그들이 원하는 행동과 말을 하지 않으면 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날 버릴꺼야.’ 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짜가 아닌 ‘착한 척, 잘 아는 척, 섬기는 척, 잘 공감하는 척, 등 세상에 있는 ‘척’이란 ‘척’은 다 갖다 붙여도 될 만큼 가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현재 대학교 생활에서도 인간관계에 있어 말 한마디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혼자가 되버린 생각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너무 외로워 정말 별짓을 다했어요. 교회나 집에서 여러가지 봉사를 하면서 착한 척, 신실한 척,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척을 하고 밖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행동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외로움, 고독, 상처’는 없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여러 상담소를 찾아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상담선생님께서 ‘영성훈련’을 권해 주셨어요. 전 영성수련을 받으면 삶이 완전히 바뀔 줄 알았어요.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과 남자들을 무서워하고 타인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느껴지는 긴장과 불안한 마음들이 모두 다 고쳐지길 원했어요. 그런데

‘나를 향한 화’는 쉽게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름다운 세상찾기를 통해 화가 나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화를 냈구나. 왜 화를 냈지?’ 하면서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제 자신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또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행동에서도 제가 하는 반응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괜찮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영성수련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동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란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께 아주 많이 화가 났었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죠?’라며 따져 묻기도 하면서 결국에는 제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슬플 때 나보다 더 슬퍼하셨고 나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부모님을 향한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바뀌게 되면서 아파하고 하염없이 울고 있던 ‘황예지’라는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지야, 화가 났구나, 미워했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하나님도 널 정죄하지 않으셔.’ 라고 말해주니 내면의 내가 ‘어? 나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괜찮다고? 예지야, 항상 혼냈잖아. 이번에도 혼내야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소망, 바른 믿음, 바른 사랑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영성수련을 통해 배운 것처럼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실천하려고 해요.

영성수련을 마치고 설곡산에서 내려와 23년 된 친구를 만나 ‘미안해, 소희야’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소희와 제 자신을 비교하며 속으로 “젠 왜 이렇게 교사 일을 열심히 하지 않지?”, “웃을 왜 저렇게 입어?”, “재네 가족은 왜 저러지?” 등의 괜한 트집을 잡으며 겉으로는 가식적으로 대했던 마음에 소희에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소희뿐 아니라, 제 자신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딸이기에 예수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 것 같아 죄송했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서는 만드시더라고요. 공부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기 많은 오빠와의 차별 속에서 엄마에게 더 사랑 받고 인정받고 싶어 마치 인형처럼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은 영성수련을 통해 ‘이웃을 바라 볼 수 있는 마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저 돈을 벌어 취직하는 것, 돈 많고 잘생기고 외모가 훗칠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던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영성수련을 다녀온 저의 마음은 이제 그 누구보다도 더할 위 없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세상입니다.

da:ll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시 제공 : 최별 (Byeol Ellie Choi)

>>> 그래도 그것을
하라

사람들은 때로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래도 친절하라.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참된 적을 만날 것이다.

그래도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것이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라.

당신이 여러 해 동안 만든 것이
하룻밤에 무너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만들어라.

당신이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산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라.

오늘 당신이 하는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지도 모른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그것이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최종적으로, 그것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다.

당신과 그들의 사이의 문제가 결코 아니다.



현장 이야기

후원안내 page 38

네팔 NEPAL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기적의 졸업식

꿈을 갖게 된 기적의 졸업식

네팔 다일공동체는 네팔 최대 빈민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처음 밥을 나누기 시작했기 때문에 유치원과 호프스쿨을 개원하여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학교가 아닌 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과 학교 같 나이지만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결석하기 일수였고, 다시 거리로 나가서 구걸하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즐겁게 학교로 달려와 공부를 하고 또래 아이들답게 신나게 뛰어 놀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자란 아이들의 졸업식이 있었는데 졸업식에서 많은 아이들이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자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는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의 가슴 벅찬 소감을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이것은 기적이라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차별을 넘어 하나됨을...

다일공동체는 어디에서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먹게 하고 차별을 넘어서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 갑니다. 오늘 졸업식은 인도 집시들, 떠라이 지방의 이주민, 네팔 빈민들의 자녀들에 졸업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한자리에 모여서 밥을 먹은 적이 없는 이들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졸업식을 마치고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밥도 먹고 함께 설거지와 청소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졸업식은 단순히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심과 정성이 모여 만든 시간

아이들에게 감동의 졸업식을 선물해 주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부족한 일손 때문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네팔 다일공동체 모든 가족들과 선배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정성스럽게 데코레이션을 장식하고, 아이들을 위한 선물과 음식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아이들의 졸업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네팔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강원희 박사님과 네팔의 저명한 헤브론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친히 졸업

식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고, 김미영, 김전옥 선교사님의 바이올린과 플룻 협주로 감동을 채우며 최희철 목사님의 진심 어린 설교가 더해져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졸업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만난 낸시

올해 열 살의 여자 아이 낸시를 처음 본 건 다일공동체에 가면 공부도 시켜주고 학교를 보내준다는 소문을 듣고 무작정 센터를 찾아와 학교를 보내달라고 조르던 모습이었습니다. 낸시는 짧은 시간에 일반 학교에 진학할 만큼 똑똑하고 열정 가득한 아이였습니다. 네팔에서 학교를 진학한다는 건 교복, 구두, 가방을 비롯하여 입학금과 보조금, 시험 비용까지 모두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낸시가 네팔 다일공동체를 졸업하는 날까지 후원자와 연결이 되지 않아서 조금한 마음으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네팔을 여행 중이던 김민정님께서 멀리 한글 '밥퍼'란 간판을 보고 네팔 다일공동체를 방문해 주셨는데 이날이 바로 낸시가 졸업하는 날이었습니다.

후원자와 연결이 되지 않은 낸시를 보고 김민정님께서선 뜻 낸시의 새로운 엄마가 되겠다고 해주시며 낸시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훌륭한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낸시가 처음 호

프스쿨에 오기 전까지는 공부는 하고 싶었지만 학교에 갈 것은 꿈도 껴 본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품은 엄마를 만나 새로운 삶을 살고 마음껏 꿈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팔 다일공동체에서 학교에 갈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는 낸시 뿐만이 아닙니다.

네팔의 빈민촌에서 자란 아이들은 밥퍼에 나와 작은 희망이 생겨 이전 공부도 하고 꿈도 꾸고 싶지만 어려운 형편 때문에 용기내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비록 가난은 대물림 되었지만, 가난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꿈을 갖길 원하는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손을 붙잡아줄 후원자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3만원을 의미 있게 쓰시기로 다짐하시고 이 아이들의 꿈을 이루어 줄 후원자가 되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팔 다일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올 해 안에 100명의 아이들이 후원자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DaIL**

네팔 다일공동체

+977-98494-58330



필리핀 PHILIPPINES

한성희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필리핀 워크샵

필리핀 스텝과, 한국 스텝들의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신 시간을 갖고 필리핀 스텝들이 준비한 시니강이라는 음식과 한국 스텝들이 준비한 김밥과 짜파게티로 필리핀 아이들과 스텝들, 아간에 경비를 담당하고 계시는 경비원 아저씨 부부까지 초대하였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한국 김밥이 너무나 맛있어 정신 없이 먹고 있는데 필리핀 스텝들과 자녀들은 처음 보는 까만 김밥이 익숙하지 않은지 먹기를 꺼려하는 눈치였습니다. 자신들에게 익숙한 현지 음식 시니강을 한 그릇씩을 먹고 난 후 드디어 김밥 한입을 맛보더니 여겨져서 “맛싸랍”(맛있다)을 연신 외쳐대며 먹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던지 순식간에 김밥을 두었던 그릇이 싹 비어졌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후, 모인 사람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 팀 대항 게임을 하였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인 빨대로 과자 나르기 게임과 닭싸움, 줄다리기, 이어 달리기 등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마치 달리기 싫어하는 민족은 없는 듯 온몸이 땀에 흠뻑 젖도록 모두가 즐거워했습니다. 게임



을 진행하면서 더욱 행복한 것은 내가 속한 팀이 이기지 않아도 누구 하나 서운하게 생각지 않고, 기꺼이 기뻐하며 박수치는 모습이 마음을 넉넉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샵을 위해 준비한 선물들은 사회 진행자와 전체 참여자와의 가위 바위 보 대결로 이긴 한 사람에게 선물을 모두 몰아주기를 했는데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유치원 교사인 룻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모두 선물을 나누며 아이들의 양 손이 선물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며 모두가 미소 짓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DAJL**



필리핀 다일공동체

+63-927-560-7346

베트남 VIETNAM

이형식 베트남 다일공동체 협동원장



훈풍의 사랑!

비행기의 트랩을 지나 이민국을 통과하고 나가기까지 더위라고는 하나도 느끼지 못했다. 여행객을 기다리는 무리 지은 사람들의 모습을 외면하고 불어오는 훈풍과 맑은 하늘을 본다면 Los Angeles에 와 있다는 착각을 할 만큼 비슷한 더위와 바람을 느낀다. 그러나 여긴 분명 북미주와는 반대편에서 하루를 일찍 달리는 동남아세아의 베트남이다. 20세기 냉전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도와준다는 면목으로 전쟁을 치른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

지난 날 사이공이란 이름으로 명성(?)을 떨치던 이곳이 패전의 수치와 함께 호치민시로 그 이름마저 바뀐

것은 아직도 옛 이름에 익숙한 참전용사에게는 낯선 지명이며 흘러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움직이기 싫은 무거운 걸음을 느끼게 한다. 45년 만에 도착한 이곳은 포성도 들리지 않는다. 하늘을 가르며 굉음을 쫓아대던 팬텀기의 부르짖음도 떠난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어느 도시와 다르지 않은 빈부와 가난이 뒤섞여 사는 사람 냄새 풍기는 도시다. 그런데 이 훈풍이 짜증스러움보다 정다움과 포근함을 안겨 주는 느낌은 무엇인가? 정확히 45년 전 난 작전이 끝나 중대 진지에서 휴식을 취하는 전우를 만나러 갔던 날, 전쟁의 증인으로 양상한 시멘트 벽 기둥만 남은 한 시골의 공공건물 앞 포성이 들리는 우물가에서 물 갖는 아낙네들의 수다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평화롭게 물을 갖는 모습을 보며 중얼거리듯 “하나님 제가 만약 이곳에 다시 온다면 선교사로 오지요”하는 움츠리는 말로 기도인지 중얼거림이었는지 모르는 약속을 하였다.

그 후 한국에서도 오기 힘든 거리에 있는 베트남보다 더 먼 북미주의 캐나다에서 근 3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동남아 뉴스 중 제일 큰 이슈는 언제나 월남 소식이었다는 것은 나의 응얼거리듯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끈에 이어져 있었던 것이었나 보다.

2014년 12월 31일!


40년의 목회생활을 은퇴로 마감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안도감이 들 때도 베트남의 포성이 들리던 우물가에서의 약속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2월에 다일공동체 밥퍼의 최일도목사로부터 베트남 선교사의 제의를 받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임을 즉감하고

어떤 의논도 없이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2014년 4월 15일 호치민시에 도착하였을 때 가슴으로 밀치고 달려오는 훈풍은 너무나 정겨운 바람이었고, 그동안 마음 한 구석을 답답하게 심장을 땡 뚫리게 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나 첫 사역이 몇 개월을 지나면서 그 훈풍의 정겨움도 버스를 갈아타고 지나갔다. 밥퍼의 현장을 오가며 땀으로 범벅이 되어 큰 피로를 느끼며 벤치에 주저앉아 버스를 기다릴 때 정말 힘에 겨웠다. “하나님! 몇 년을 해야 할까요?” 그러다가도 45년이란 세월을 참고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기다림을 생각하며 속마음은 미안함으로 씨익 웃음을 짓는다.

첫 해의 사역을 마치고 캐나다에 가서 후배들의 격려를 받으며 몇 교회에서 보고회를 가졌다. 염려하시는 마음에 한 편에서는 가지 말라고 말리시는 분들이 많으면 핑계로 좀 생각해 보고픈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거의 모든 분들이 은퇴 후에도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부럽다고 하시며 격려해 주시고 후원자가 되어 주시니 이제는 은퇴도 없는 선교사가 되었다. 은퇴가 없는 선교사! 싫지가 않다. 시간이 지나면 현장에 머무는 시간이 더 짧아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밥주걱을 쥐고 밥을 풀 수 있는 힘이 있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까지나 기쁘게 이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훈풍의 포근함이 나를 감싸며 앉아 주시는 그 날까지!

DaIL

베트남 다일공동체

 +84-12-6317-7912



캄보디아 CAMBODIA

김학용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청소년 제자 양육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는 매주 주일에 청소년, 성인예배와 어린이 예배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3월부터는 청소년 1부와 청소년 2부가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경기도 일산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파송 받아 2월부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정제성 전도사님이 함께 하여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일주일간의 Q.T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와 기도, 삶 나눔 등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 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 점심시간마다 센터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미래로 자라나고 있는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855-12-808-861

기도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KCOC 봉사단원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섬겼던 정다운, 김새롬 간사님이 1년여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명과 준비를 위해 4월 2일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2015년 3월부터 1년간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섬기게 된 신진오, 홍다나, 박지연 간사님이 오셔서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아이들과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캄보디아에서 수고하는 간사님들이 있어 오늘도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더 많이 사랑 받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아이들을 섬기겠노라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느낍니다. 수고하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많은 청년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DaIL**



특집 기사

롬 윗다 이야기 | 롬 윗다는 2010년 12월생입니다. 현재 한국 나이로 6살이지만 몸무게는 고작 6kg정도인 매우 작은 아이입니다. 현재 할아버지, 할머니, 언니, 오빠들과 살고 있는 롬 윗다는 태어난 지 2달 만에 심장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모유도 먹지 못하고 구토하기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분유와 설탕을 섞어 먹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이지만 아이를 살리고자 부모님은 시엠립에 있는 병원에 찾아가보았지만 찾아간 모든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니 포기하라며 진료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프놈펜까지 찾아가보았지만 아이가 너무 작아서 치료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현재 부모님은 일을 하기 위해 태국에 가셨고 연로하신 할머니가 롬 윗다와 형제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분유도 1통에 \$13로 매우 비싸기 때문에 한 달에 \$1000이 넘는 분유 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매달 분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래의 다른 아이들처럼 롬 윗다가 음식도 자유롭게 먹게 되고 학교도 다니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넉넉히 채워지고 꼭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탄자니아 TANZANIA

변창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호프클래스 2기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탄자니아 호프클래스 2기의 문이 드디어 활짝 열렸습니다. 28명의 아이들과 학교에 아직 가지 못하고 더 배워야 하는 1기생 7명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준비했던 명찰과 티셔츠, 책가방과 학용품을 나누어 주고 자리 배치와 신발장에 신발을, 사물함에 가방을 놓는 방법, 손 씻는 방법, 화장실 사용 등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읽고 쓸 줄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 기초 교육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 보는 얼굴도 있고 서먹하였지만 이제는 친한 친구들이 되어서 공부할 때에는 열심히 하고 쉬는 시간에는 여느 아이들처럼 재미나게 뛰어 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기부터는 매일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한 호프클래스 1기 시절에는 밥을 짓지 못 해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2기부터는 따끈따끈한 밥을 매일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부할 수 있음에 기쁘고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음에 아이들은 더욱 기뻐하고 행복해 합니다. Sickle cell로 투병 중인 '버나드'도 더욱 활짝 웃습니다. 엄마가 알코올 중독으로 학교도 못 다니고 하

루 종일 짚쫄 굶어 가난한 동네사람들에게 조차 걱정거리였던 '다우디'도 이제는 환히 웃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공부도 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도 할 수 있어서 결석 하는 아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출석률이 좋습니다. 밥퍼를 통해 빈그릇 운동을 실천하고 본인이 먹은 그릇은 본인이 닦는 성자되기 첫걸음(설거지)까지 배우며 호프클래스는 오늘도 한걸음씩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 밥 먹는 모습을 보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호프클래스를 통해 35명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교육은 백년대계의 초석입니다! **daiL**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255-786-740-003

중국 CHINA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



중국다일공동체 홈커밍데이

중다일은 매년 홈커밍데이를 합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를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쉬기 때문에 외지에서 직장을 다니던 가족들이 모두 돌아옵니다. 성인이 되어 출가해 있던 언니, 형님들이 동생들의 선물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와 동생들을 만나고 모두 함께 옛이야기와 현재의 삶을 나누며 울고 웃는 귀한 시간입니다. 홈커밍데이에는 옛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웃놀이도 하고 졸업생들끼리의 모임도 새롭게 조직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춘절기간에 졸업생 리예화의 시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같이 빈소를 지키고 동생들이 돌아가며 심부름도하고 함께 울고 위로하며 장례를 치렀습니다. 비록 경쾌하고 즐거운 시간들은 조금 덜했지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하며 힘이 되기를 바라는 따듯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포스코 현대 국제 물류 유한공사 방문봉사

한국 포스코 건설 산하기관인 포스코 현대 국제 물류 유한공사에서 법인장님과 직원 15분이 오셔서 다일어린이집 전체 대청소와 4층부터 1층까지 계단 물 청소 등 봉사활동을 하셨습니다.



너무 열심히 청소해주셔서 중국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정기 봉사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시며 정기적인 활동을 약속 하셨습니다. 더불어 아이들 선물로 쌀 100KG, 우유 20상자, 빵 4상자를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향미

중국 다일어린이집에 새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최향미이고 14살, 조선족 여자아이입니다. 중국으로 탈북 했다가 복송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버지와 살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삼촌과 살며 전학만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성적도 좋지 않고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또 매사에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형편도 좋지 않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삼촌이 사춘기 조카를 돌보기에는 너무 힘에 부쳐 민정국을 통해 다일어린이집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한족 집성촌에서 살면서 한족학교를 다녔는데 조선족인데도 전혀 조선말을 하지 못하고 한어(중국어)만 할 줄 압니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수도 점점 늘고 공부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열정을 보입니다. 향미가 더욱 밝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꿈을 찾아 땀 흘리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향미를 응원해주세요!

포콘스(대표 정낙환)의 임대료 후원

매년 4월이면 중국 다일어린이집은 1년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원의 포콘스(대표 정낙환)에서 올해도 임대료 전액을 후원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4월이 되기 훨씬 전, 미리 후원금을 입금해주셔서 마음조리지 않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임대료를 지불하였습니다. 포콘스 가족들과 정낙환 대표님께 중다일 온 가족의 마음을 모아 인사드립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da:IL**

중국 다일공동체

+86-433-753-8004



다일천사병원 · 다일작은천국

임정순 다일작은천국 원장



새롭게 재출발하는 다일작은천국!

3월부터 확 바뀐 다일작은천국 사무실 분위기. 작은 천국에 새로 부임하신 가슴 따뜻한 어머니 미소와 마음을 지닌 임정순원장님을 입소자 어르신들 모두가 두 팔 벌려 환영했습니다. 2015년 3월 2일 작은천국의 제3대 임정순원장님의 취임식을 위해 프리지야향이 가득한 꽃다발과 멋진 케익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서울다일교회 전임전도사로 섬기시던 임정순 전도사님께서 공식이던 다일작은천국의 원장님으로 사명을 명받아 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교수직도 강사직도 다 사임을 하시고 진정 사랑의 마음으로 임종을 앞둔 다일작은천국 환우들을 어머니처럼 섬기시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지난 20년의 세월을 한결 같은 마음으로 다일을 사랑하시고, 희노애락을 함께 했던 임정순 원장님입니다. “한 명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는 나무가 되고, 누군가는 물이 되고, 누군가는 대지가 되고, 누군가는 풀이 되고, 누군가는 돌이 되고, 누군가는 이끼가 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숲, 푸르고 푸른 多-을 꿈꾸어 봅니다!” -최일도의 행복편지 中-

슴사탕같은 미소를 가진 류0재님의 재활치료 이야기

3년 전 고혈압으로 인한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로 부인과 아들이 있지만 아프고 능력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 2년 전 무작정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주로 청량리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전

전하며 밥퍼에서 식사만 해결하는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편마비와 언어장애는 치료도 못하고 거리를 떠돌다 몸이 아프면 다일천사병원에서 약만 처방받아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다일작은천국으로 입소를 결정하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생활할 때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술과 담배를 많이 하였으나 입소 후 지금은 굳은 의지로 담배를 모두 반납하고 술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우측 편마비로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고 뇌경색으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수도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특별자활을 할 수 있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작은천국에서 자활활동도하고 세탁도우미로 일하여 한 달에 36만원정도의 수입도 생겼습니다. 이 수입으로 언어재활치료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류0재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는 다일작은천국에서 자활활동을 통해 언어치료를 열심히 받아서 가족들과 만나 지금껏 못했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누는 것이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꿈과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외롭게 지내던 날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일작은천국을 만나 삶에 대한 의욕과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류0재님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일천사병원 작은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2014년 9월 강00님께서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하셨습니다. 한달 전 뇌종양을 진단받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우연히 다일천사병원을 알게 되어 진료를 받았고 뇌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무원장

님의 소견으로 의료서비스가 가능한 다일작은천국으로 입소하여 서울의료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료원에서 입원한 후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며 병원에서는 환자의 가족들을 찾고 별거 중이던 부인과 고등학교 1학년 아들 그리고 형님과 형수님까지 병원으로 찾아가 환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강00님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편안히 임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형님과 형수님은 다일작은천국으로 찾아와서 감사함을 전했고 동생과 같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욱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후원을 약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일작은천국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DaIL**



다일 천사병원 작은천국

☎ 02-2213-8004

밥퍼나눔운동본부

박종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원장

밥퍼의 5분대기조 휴먼레이스

27살 청년 밥퍼에는 참으로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생으로부터 어르신들까지, 동대문경찰서 공무원부터 청와대 공무원까지, 소규모 가게부터 대기업 직원들까지... 그래서 밥퍼에서 원하는 날짜에 봉사하기 원하는 분들은 선착순 마감이라 신청이 늦어지면 원하는 날짜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3,4월은 유난히도 평일 자원봉사가 부족한 날들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봉사팀이 '휴먼레이스'입니다. 일반인 마라톤 동호회원으로 이루어진 휴먼레이스는 몇 해 전부터 밥퍼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김인천님을 비롯한 휴먼레이스는 밥퍼의 긴급전화를 받으면 회사에 휴가원을 내고 밥퍼로 달려올 정도로 밥퍼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어느덧 밥퍼의 5분대기조가 된 휴먼레이스는 생각만해도 참 든든합니다.

이런 휴먼레이스 회원가운데 손석오님은 자칭 '휴먼레이스 회원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말씀처럼 매주 밤샘으로 회사일을 마치고 2,3일을 꾸준히 봉사올 정도로 가장 열심히 봉사하는 분입니다. 얼마 전에는 하프 마라톤에 출전하여 10등을 하고 부상으로 받은 20Kg 쌀을 밥퍼에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음도 착하고 키도 크고 달리기도 잘하는 총각 손석오님을 밥퍼 가족들이 보증하니 마음있는 예비신부들은 밥퍼로 봉사 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면을 빌어 밥퍼 스텝들과 밥상공동체 가족들이 손석오님, 김인천님을 비롯한 휴먼레이스 동호회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휴먼레이스 최고입니다! **DaIL**



밥퍼나눔운동본부

☎ 02-2214-0364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2015년 3월 10일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된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순자산변동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정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회계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화회계법인은 Moore Stephens International Limited의 한국 내 회원사입니다.

Moore Stephens International Limited의 회원사들은 약 98개 국가에 각각 독립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법인의 재무제표는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의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를 법인의 정관, 사회복지법인및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및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삼화회계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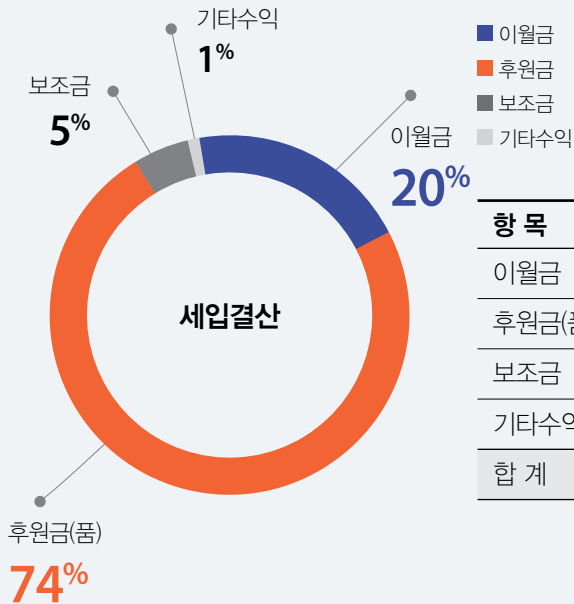
대표이사

석 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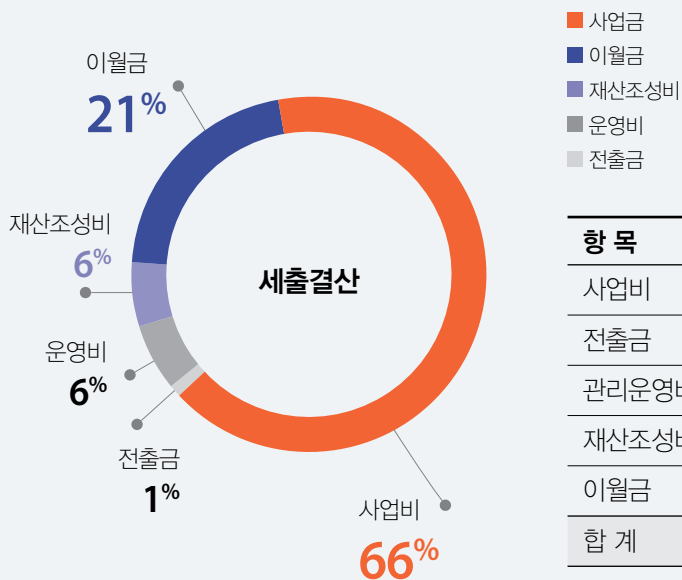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 될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서



단위: 천 원

항 목	금 액	%
이월금	1,223,588	20.25
후원금(품)	4,494,457	74.38
보조금	289,604	4.79
기타수익	35,131	0.58
합 계	6,042,780	100.00



단위: 천 원

항 목	금 액	%
사업비	4,030,477	66.70
전출금	57,607	0.95
관리운영비	349,181	5.78
재산조성비	345,579	5.72
이월금	1,259,936	20.85
합 계	6,042,780	100.00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산청 간디중학교 |

경상남도 산청에서 간디중학교 11명의 학생들과 선생님이 밥퍼를 찾아왔습니다. 2박3일 동안 서울에 숙소까지 잡아 3일 연속으로 아주 열심히 섬겨주었는데요, 어르신들이 아주 기특하다고 칭찬이 자자했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한국 구화학교 |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구화학교 친구들이 밥퍼를 방문했습니다. 봉사 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했던 봉사활동이었지만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심히 봉사에 임해주었는지 밥퍼 스텝들이 감동했습니다. 밥상공동체 어르신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던 한국구화학교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군인공제회 |

분위기부터 능름한 군인공제회 임직원들이 오셨습니다. 역시 절도 있는 모습과 카리스마로 봉사를 척척 해주셨는데요, 이번 봉사를 통해 감동을 많이 받으셔서 여름에 다시 한 번 찾아오겠노라고 약속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군인공제회 이상돈 이사장님과 직원들 모두 감사합니다!



홈플러스 |

이용고객님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진행해오던 동대문점 홈플러스에서 이번에는 본사 임직원분들과 함께 밥퍼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께 직접 따뜻한 밥 한 끼를 해드릴 수 있어 행복했다는 직원 분들의 고백이 참 감동이었답니다!



두산 네오플렉스 |

네오플렉스 임직원들이 2년만에 밥퍼를 방문하셨습니다. 작년에 방문하지 못해 너무 아쉬웠으며 이 날만을 기다렸다고 하셨는데요. 역시 기대만큼 꼼꼼히 섬겨주셔서 어르신들도, 밥퍼 스텝들도 기뻐합니다. 사장님께서 자주 들리겠다고 약속하고 돌아가셨는데 자주 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6사단 221연대 3세대 |

동대문구를 담당하는 군인 청년 분들이 오셔서 이번 에 대청소를 했습니다. 여기저기 구석까지 열심히 청소해주셔서 더욱 깔끔하고 광이 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밥상공동체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군인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신한생명 |

신한생명 신입직원들이 연수 중에 밥퍼를 방문하셨습니다.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정성스레 섬기는 모습이 앞으로 정식으로 근무를 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겠다며 감사하는 봉사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요. 밥퍼를 응원하겠다며 기쁘게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학교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 |

서울대 학생들이 프로네시스 나눔실천단의 이름으로 찾아주셨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봉사하면서 서로서로 더욱 돈독해지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꼼꼼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맡은 바 열심히 해주셔서 다녀가신 밥퍼 주방이 반짝 반짝 빛을 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T.H.A.N.K.S. T.O

<p>신규후원회원 15.02.16~04.15</p>	<p>(주)대해건축, (주)티이티이, KIMANDREWSUNGSOO, 강동희, 강성용, 강윤지, 강인석, 강현민, 고선화, 광성교회제자반, 광양중동교회, 교남동합바식당, 구자득, 군산성원교회, 권미선, 권수남, 권주호, 기계성+장영아, 김경호, 김근기, 김길아, 김남욱, 김대영, 김도원, 김명신, 김명옥, 김미자, 김민재, 김범진, 김병언, 김상훈, 김서정, 김서하, 김서혁, 김선자, 김성수, 김성순, 김성우, 김수정, 김순동+김명강+박종길, 김승하, 김시은(전화백), 김영주, 김영진, 김용학, 김원기, 김윤수, 김윤정, 김익희, 김일지, 김주용, 김주일, 김준일, 김지섭, 김지인, 김진영, 김채원, 김철훈(김현교), 김태우, 김태현, 김한용, 김현수, 김현진, 김현진, 김현희, 김형인, 김혜숙, 김혜영, 나영서, 나종현, 남현식, 노숙자생명속전금, 농협은행(주)경기영업본부, 단자영, 도성준, 동정옥+송주현, 떡국떡, 라복성형외과, 러브피플, 명선희, 문신화+권사보는할머니, 민동준, 민정수, 박강수, 박경신, 박상용, 박선영, 박성래, 박수진, 박승철주안점, 박애선, 박영준, 박은영, 박정민, 박정은, 박종찬, 박진규, 박현선, 방지영, 배민극, 배민수, 배선경, 배선미, 배애영, 배은지, 변계영, 변은영, 별내교회, 산본교3월, 서동환, 서우경, 서울외신기자클럽, 서울축산업협동조합, 서은영, 서지영, 소망교회대학부&아이소망, 손혜원, 송승민, 송우영, 송주은, 순천대학교홍보대사(인문예술대학), 시와니후원송민정, 신경숙, 신금숙, 신윤임, 신현문, 신화수, 신화지연승희, 신호은, 안계진, 안정희, 양승리, 양은혜, 엄혜정, 연제호, 염아람태아, 오피관, 오미령, 오양순, 오지선, 온세로교회, 우삼규, 원지연, 유경미, 유기준기부금, 유다혜, 유명옥, 유병주, 유상민, 유선영, 유재영, 윤세희, 윤지현, 윤태연, 이경희, 이금희, 이바울, 이성수, 이성원, 이성진, 이승은, 이승교, 이승아, 이우혁, 이우리, 이은실, 이은정, 이재철, 이재현, 이정국예찬, 이준재(떡5봉기부), 이지은, 이지훈, 이현순, 이현우, 이혜진+이재원, 이호관, 이홍재, 익명기부, 임기환, 임민음, 임세린+임서현, 임세창(임지원, 임정아, 임진아), 임정선, 임현주, 임희숙, 장석주, 장진영, 장해진, 전재필, 전지혜, 정권석, 정영택, 조경수, 조라혜, 조장익, 조재욱, 주식회사오더커뮤니, 주자람, 직업이회준, 진찬미, 차은지, 채호진, 최기주, 최기환, 최대용, 최문현, 최보배, 최선관, 최예찬, 최윤경, 최윤숙, 최윤진, 최윤찬, 최은경, 최정심, 최정임, 최찬미, 포스코니눔재단, 한규택, 한현순+최종택, 한혜연, 함종찬, 함현진, 해성여고, 해성여고2-3, 허미선, 허성혁, 허을인, 황규태, 황예지, 황은주, 황인원</p>
<p>밥퍼나눔운동본부 15.02.16~04.15</p>	<p>후원물품 / SGI 서울보증보험(스텐가스밥솥 10개), 강민수+이초아(고구마 1상자), 골드후레쉬(황금향, 청포도, 귤감, 파인애플), 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쌀 1600kg), 드림재단(빵 6400개), 박예슬(우유 100개), 보석상자(쌀 350kg), 복시루(떡국떡 80kg), 뷰티플마인드(쌀 200kg), 삼오종합식품(고추장 1통, 된장 1통), 서울우유(버블밀크티 143box, 우유 2016개), 신하균(쌀 160kg), 오라클(쌀 60kg), 최주현(쌀 240kg), 허순옥(쌀 100kg), 훔플러스(쌀 200kg)</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15.02.16~04.15</p>	<p>후원금 / 주)씨제이프레시웨이, 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다일교회 김광숙집사, 조용근장로</p> <p>후원물품 / 농협청량리점(쌀20kg 20포), 로템나무(컵케익, 샌드위치), 배기호(전장김 30장), 서노협(남자보온내의 43개), 오미희(귤감, 과일도마), 은혜짜장(짜장면 점심제공)</p>
<p>다일천사병원&작은천국 15.02.16~04.15</p>	<p>후원금 / 주)씨제이프레시웨이, 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서울다일교회 김광숙집사, 조용근장로</p> <p>후원물품 / 농협청량리점(쌀20kg 20포), 로템나무(컵케익, 샌드위치), 배기호(전장김 30장), 서노협(남자보온내의 43개), 오미희(귤감, 과일도마), 은혜짜장(짜장면 점심제공)</p>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p>캄보디아일공동체 15.02.16~04.15</p>	<p>후원금 / IUMC, 경기도시군의회의원협의회, 고세인+이파리+고새힘, 권윤경, 김광숙, 김남동, 김상선+이문자, 다일교회 1여선교회, 대전성모초등학교 불용팀, 박준수+조영옥(밀양남부교회), 박종근, 박호수, 상계광림교회, 서경애, 소영언, 원복규+황재남, 원재희, 윌택시스템(주), 유니세프, 이대환+홍순덕, 이동한+이영석(밀양시민교회), 이영석, 이영주,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 전북대학교, 정용균, 정진석, 정호선, 주문진로타리클럽, 최민상+최재희+최유림+최유민, 최영미, 캄보디아현지인대학생팀, 한성희, 한연, 한용섭+한혜린+김수연, 한해연</p> <p>후원물품 / DK투어(의류, 학용품 외), HNT(의류, 간식 외), TOC(학용품), 김재미(의류, 가방 외), 나사렛대대학교(학용품 세트 외), 보라비전교회(의류, 신발), 손귀자(간식, 학용품), 인천광역시아동복지협회(학용품, 의류 외), 주문진로타리클럽(쌀, 밀가루 외), 투어익스체인지(학용품 외)</p>
<p>중국다일공동체 15.02.16~04.15</p>	<p>후원금 / 김성재(Obey & Praise), 리현운, (주)룩두, 민경식(북경), 박건(상해), 왕위동+탄의사, 정신숙, 합작구 관리위원회 반공실</p> <p>후원물품 / 권영광제빵(빵), 윤경(월 4회 간식지원), 무명(파배기 240개), 무명(밀면, 옥수수국수), 룡정JTS(옥수수 국수), 포스코 현대 국제물류유한공사(쌀 100KG, 우유 20상자, 빵 4상자), 한홍수+김광호(과일)</p>
<p>탄자니아다일공동체 15.02.16~04.15</p>	<p>후원물품 / 임성미(삼성 LCD HDTV 1대(중고), 수납장, 의자, 선풍기, 테이블, 문구류, 변압 안정기)</p>
<p>베트남다일공동체 15.02.16~04.15</p>	<p>후원금 / A PLUS, ARDITO, Daewoo International, HANDONG E.N.C, LOTTERIA, MAX, VINA, MAX VINA, NAHAL(김명환대표), NAHAL(김명환대표), ORION, POSCO-South Asia, THANH CONG, THANH CONG, U.E.C(김경중대표), VEGAS, 기업은행, 나향준 권사님(사이공한인연합교회), 닥터카, 대장금,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아산상선, 오경숙님, 이정자 권사님(자전거 목적후원), 참마트 모금함, 포스코베트남, 호치민중앙교회</p> <p>후원물품 / POSCO-ICT(쌀 20kg), Sweet Factory(빵 1080개), THANH CONG(바나나 240개), VEGAS(컵라면 4box, 우유 144개), 사이공드림교회(초코파이 2box통큰소(닭죽 120인분))</p>
<p>네팔다일공동체 15.02.16~04.15</p>	<p>후원금 / Muna, 강원희, 강정민, 기장익산노회 임원단, 김창근, 노규환, 무명, 송연수, 외교통상부 국회의원보좌관, 윤우, 이미경, 조행란코이카네팔소장, 지태다일유치원, 최희철+김은경, 한일교회이국현, 허태환</p> <p>후원물품 / 박선규대표, 황혜정(공동체아이들 간식), 박용대(주민건강시설), 서울다일교회베드로선교회(성경책, 손목시계), 이정희(정글짐)</p>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위한 캠페인입니다.(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노숙인 및 무의탁 어르신들께 하루 진지를 대접하는 후원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만원의 행복	외환은행 131-22-00800-7 외환은행 131-22-00892-9 하나은행 158-910001-02004
	생쌀이 운동(Rice Pot Relay)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생쌀이운동)
	밥퍼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다일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40926776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미주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미주다일공동체 구좌로 송금하시거나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dailusa.org)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후원하실수 있습니다.)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다일복지재단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밥퍼니눔운동본부

130-8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설곡산다일공동체

477-852 경기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Tel. 031-585-2004

다일평화의 마을

477-852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u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중국 다일공동체

133300 吉林省 琿春市 新安街 多一少年之家
Tel. +86-433-753-8004

네팔 다일공동체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Post Box No. 25655 Kathmandu, NEPAL
Tel. +977-98494-58330

포카라 지부

17 Damside Kaski, Pokhara Sub Municipality, Nepal
Tel. +977-98607-76685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필리핀 다일공동체

BLK 8 Lot 3 Calliandra st. I Greenwoods, Paliparan#1
Dasmariñas, Cavite 4114,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White House No 10
Dar Villa Plot No. 2, Block D, Low Density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786-740-003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12-6317-7912 / 070-8220-6160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416-824-4831

135만부 베스트셀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작가
 진정한 나눔의 아이콘!
 “밥퍼 목사 최일도” 신간



7년을 하루같이
 날마다
 하루같이 I II

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편지를 쓰고
 2,555통의 사연을
 뜻과 정성 다해 부쳐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동 휴먼 스토리

가격 / 권당 12,500원 / 두권 한세트 25,000원

이 책의 인세 수익금은 다일공동체를 통해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만원의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생쌀이운동 36,500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월 _____ 원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생쌀이운동(<input type="checkbox"/> 36,500원 <input type="checkbox"/> 365,000원 <input type="checkbox"/> 3,650,000원)
<input type="checkbox"/>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input type="checkbox"/> 밥퍼 1일 배식비(280만원)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다일아너스클럽회원(1구좌 1억원) <input type="checkbox"/> 유산 10% 기부회원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 여)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SMS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 발송 우편물 미발송

CMS 자동이체 동의서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기부금 영수증

주민등록번호 _____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시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소득세 법 34조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D

a

I

L

C O M M U N I T Y



일러스트 : mini (송민희) miniya10@hanmail.net

보내시는 분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4.02.14 ~ 2016.02.13

동대문우체국승인
제40242호

DAIL 다일공동체
DAIL community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밥퍼나눔 최일도 목사와 함께하는
눈물과 감동의 힐링여행

다일영성생활수련

힐링 여행, 다일영성생활수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울증, 중독, 가출, 자살, 가정불화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부부, CEO, 교수, 목사, 정치인, 연예인 등
각 분야의 사람들과 가정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류승범(영화배우)

“다일 수련을 통해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을 새롭게 체험한
저에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일정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 164기 6월 15일 ~ 19일(4박 5일)
- 165기 7월 13일 ~ 17일(4박 5일)
- 166기 7월 27일 ~ 31일(4박 5일)
- 167기 8월 10일 ~ 14일(4박 5일)

2단계 작은예수 살아가기

- 47기 8월 17일 ~ 21일(4박 5일)

3단계 예수님과 동행하기

- 19기 8월 3일 ~ 8일(5박 6일)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전화 031.585.2004, 010.6375.8004
홈페이지 www.dail.org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후원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복지재단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작성하신 후원신청서의 사진을 다일복지재단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과 카카오톡 친구되기

- 1.ID로 등록: dailwf
- 2.QR코드로 등록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